

# ICT산업 2019년 2분기 동향

- I. 반도체
- II. 디스플레이
- III. 휴대폰

---

작성

선임연구원 이미혜 (3779-6656)

---





## <요 약>

### **(반도체) 2분기 세계 메모리반도체산업은 수요 둔화, 재고조정 등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30% 이상 축소됨**

- 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2% 감소한 148억 달러, 낸드 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4% 감소한 108억 달러를 기록
- (가격) 경제 불확실성 증가, 반도체기업과 수요기업의 높은 재고 수준으로 인해 3 분기에도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나 하락폭은 축소 전망
- (수출) 2분기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가격하락,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3.3% 감소한 246.2억 달러를 기록

### **(디스플레이) 2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은 패널 출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.6%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**

- (세계시장) LCD 패널시장은 TV 패널 출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.3%, OLED 시장은 스마트폰·TV 패널 출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.7% 성장
- (가격) 미중무역협상 난항 등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6월부터 가격 하락폭이 확대 되었으나 3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도래 등으로 가격 하락폭 완화 예상
- (수출)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.5% 감소한 49.4억 달러를 기록

### **(휴대폰)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33.2백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2.3% 감소, 전 분기 대비 6.5%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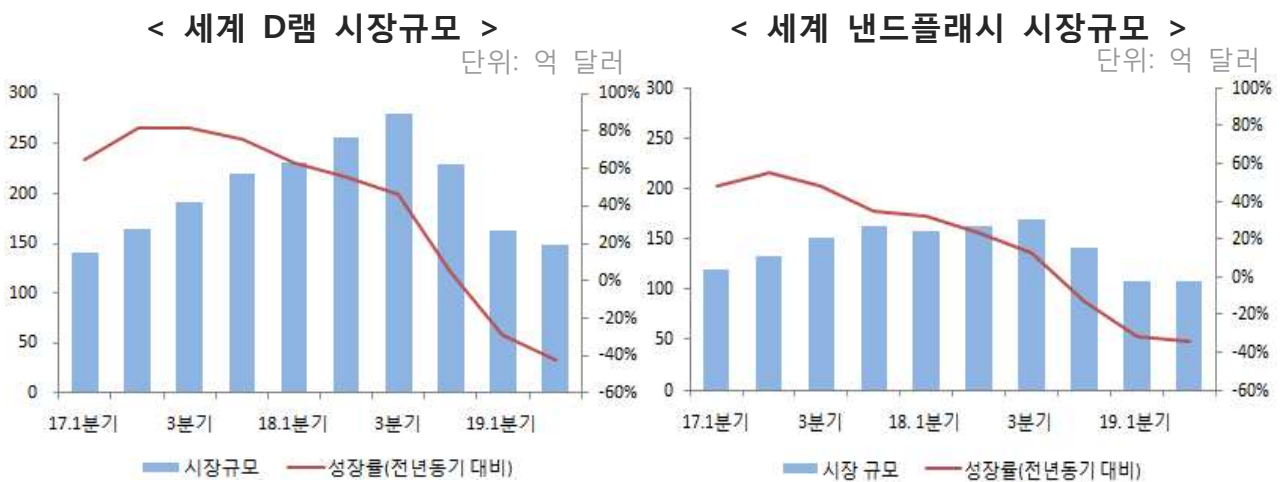
- (세계시장)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7분기 연속 감소,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자 국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8.3% 증가하면서 2위를 유지
- (기업) 삼성전자의 매출증가율은 5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수익성은 중저가 모델 강화 등으로 인해 하락
- (수출) 2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.4% 감소한 29.6억 달러를 기록



## I. 반도체

**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메모리반도체산업은 수요둔화, 재고조정 등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0% 이상 축소됨**

- 2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2%, 전분기 대비 9% 감소한 148억 달러,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4% 감소했으나 전분기 수준인 108억 달러 유지
- 메모리반도체의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이었던 전년동기와 비교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전분기 대비 성장률 하락폭은 축소되는 추세
- \* D램 시장규모 증가율(전분기 대비, %) : ('18.4분기)△18.3→('19.1분기)△28.6→(2분기)△9.1
- \* 낸드플래시 시장규모 증가율(전분기 대비, %) : ('18.4분기)△16.8→('19.1분기)△23.8→(2분기)0.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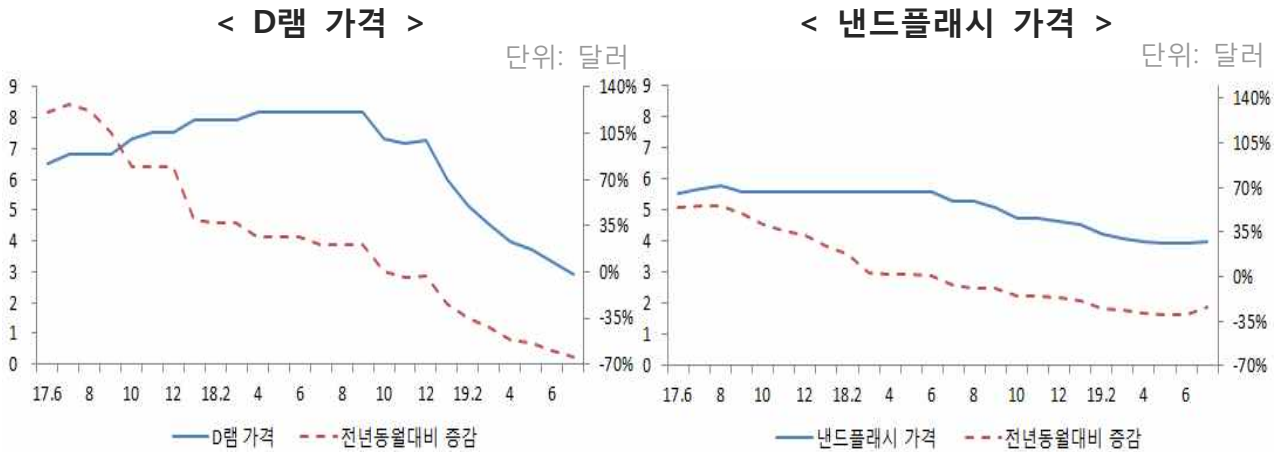
자료 : DRAMeXchange

**(가격) 스마트폰·PC 수요 개선에도 서버 수요 회복 지연으로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55%,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9% 하락**

- \* D램 가격은 DDR4 8Gb 기준, 낸드플래시 가격은 128Gb MLC 기준
- 스마트폰의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탑재, PC는 윈도우10 전환에 따른 교체 수요와 인텔의 CPU 공급부족 해소 등으로 인해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4.7% 증가하면 수요가 개선됨
- \* 갤럭시 S10 ('19.3 출시) : (D램) 6~8GB, (저장용량) 128GB~1TB(=1,024GB),  
갤럭시 S9 ('18.3 출시) : (D램) 4~8GB, (저장용량) 64~256GB
- \*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1월부터 윈도우7 지원을 중단하여 PC교체 수요 증가



- 일부 데이터센터 기업의 구매가 재개되었으나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구매 수요는 아직 약한 상황



주 : D램은 DDR4 8Gb 1Gx8 2133MHz,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 고정거래 가격 기준  
자료 : DRAMeXchange

### (가격전망) 경제 불확실성 증가, 반도체기업과 수요기업의 높은 재고 수준으로 인해 3분기에도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세가 지속되나 하락폭은 축소될 전망

- D램은 주요 기업의 생산량 조정, 계절적 성수기 도래 등으로 인해 가격하락폭 축소 예상
  - 삼성전자는 생산량 조절 계획이 없으나 SK하이닉스는 4분기부터 D램 생산량을 조절할 계획이며 마이크론은 2019년 D램 웨이퍼 투입량을 5% 축소할 계획
  - D램 현물가격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 규제 발표(7/1) 후 소폭 반등했으나 현물시장의 낮은 비중(10%),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현물가격 상승이 고정거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  - \* D램 현물가격(DDR4 8Gb 기준, 달러) : (7/2)3.11→(7/19)3.74→(7/23)3.69→(8/2)3.63→(8/9)3.58
  - \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 기준, 달러) : (5/31)3.75→(6/28)3.31→(7/31)2.94
- 낸드플래시 가격이 Cash cost<sup>1)</sup> 수준에 근접하면서 주요 기업은 감산 계획을 발표하여 3분기 낸드가격 하락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
  - \* '19.1분기에 낸드플래시 상위 5개 기업중 3개 기업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
  - 도시바 요카이치공장 정전사고(6/15)로 6개 생산라인중 2개가 가동중단되면서 7월 낸드플래시 가격(128Gb MLC 기준)은 전월 대비 2% 상승
  - 7월말부터 도시바 공장가동이 시작되었으나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웨이퍼 투입량을 15% 축소, 마이크론은 10% 축소할 계획을 발표하여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

1) Cash cost는 현금주의 비용으로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, 무형자산 상각비를 제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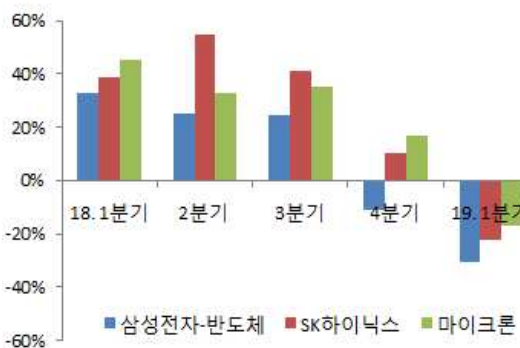
- 기업들의 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추진<sup>2)</sup> 등으로 인한 IT기기 수요 둔화, 중국 경기 위축 등은 가격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

**(기업) 2분기 주요 기업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6% 이상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도 2019년 1분기 20~30% 수준에서 2분기 10~20% 수준으로 하락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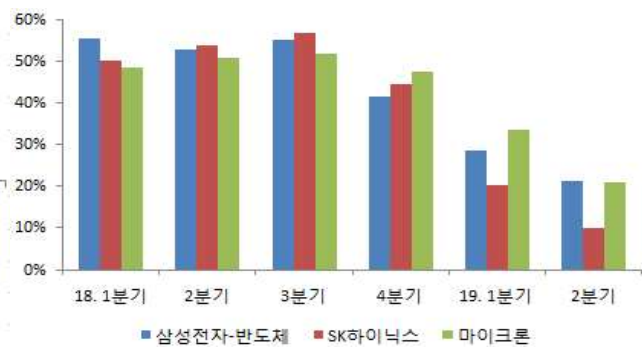
-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매출은 2018년 4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매출도 2분기 연속 역성장
-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7% 감소, 전분기 대비 11% 증가했으나 SK하이닉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8%, 전분기 대비 4.7% 하락
  - 마이크론의 회계기간(3~5월)은 경쟁사와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
  -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매출(반도체 매출의 76%)은 전년동기 대비 34% 감소했으나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이미지센서, 파운드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9% 증가
-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50% 이상 하락했으며 도시바는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
  -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영업이익률은 2014년 2분기(19%) 이후 가장 낮은 21.1%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89%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은 9.9%를 기록
  - 도시바<sup>3)</sup>는 낸드플래시 가격하락으로 2019년 1분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2분기는 정전사고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△46.2%로 하락

\* 도시바 영업이익률 : ('18.4분기)17.4%→('19.1분기)△11.5%→(2분기)△46.2%

<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>



<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>



자료 : 블룸버그, 전자공시시스템

2)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3차례 부과했으며 4차 관세부과대상은 스마트폰, 노트북, 태블릿 등을 포함  
3) 2019년 3월 도시바 메모리 홀딩스 출범. 10월에는 사명을 Kioxia로 변경 예정



## (수출) 2분기 반도체 수출은 반도체 가격하락,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3.3% 감소, 전분기 대비 4.7% 증가한 246.2억 달러를 기록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.1% 감소한 170.3억 달러,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.4% 감소한 75.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분기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분기 연속 역성장

\* 반도체 수출증가율(%): ('18.2분기)39.2→(3분기)29.1→(4분기)7.4→('19.1분기)△21.5→(2분기)△23.3

-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(홍콩 포함) 수출(비중 66%)은 전년동기 대비 28% 감소, 2위 수출대상국인 베트남 수출은 9% 증가, 미국 수출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

- 2분기 반도체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0.2% 감소, 월별로 보면 물량은 1~5월에는 개선됐으나 6월에는 미국의 화웨이 규제, 미중무역협상 난항 등으로 수출물량 감소

\* 반도체 수출물량(전년동월 대비, %): (1)△3.8→(2)△2.7→(3)3.3→(4)2.0→(5)2.7→(6)△5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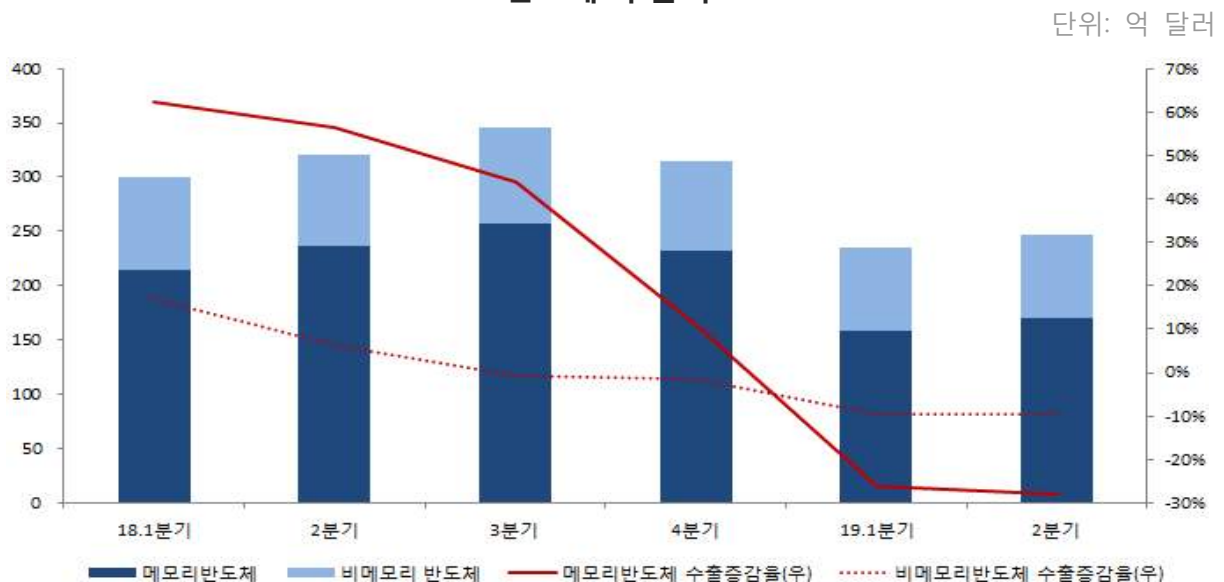
\* 반도체 수출물량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4분기)△0.5→('19.1분기)△1.1→(2분기)△0.2

- 2분기 반도체 수출단가<sup>4)</sup>는 전년동기 대비 23.5% 하락했으며 4월까지의 수출단가가 개선되었으나 5~6월에는 가격 하락폭 확대

\* 반도체 수출단가(전년동월 대비, %): (2)△22.7→(3)△19.4→(4)△15.4→(5)△32.3→(6)△21.5

\* 반도체 수출단가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4분기)8.9→('19.1분기)△20.5→(2분기)△23.5

### < 반도체 수출액 >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4) 수출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물량(톤)으로 나누어 계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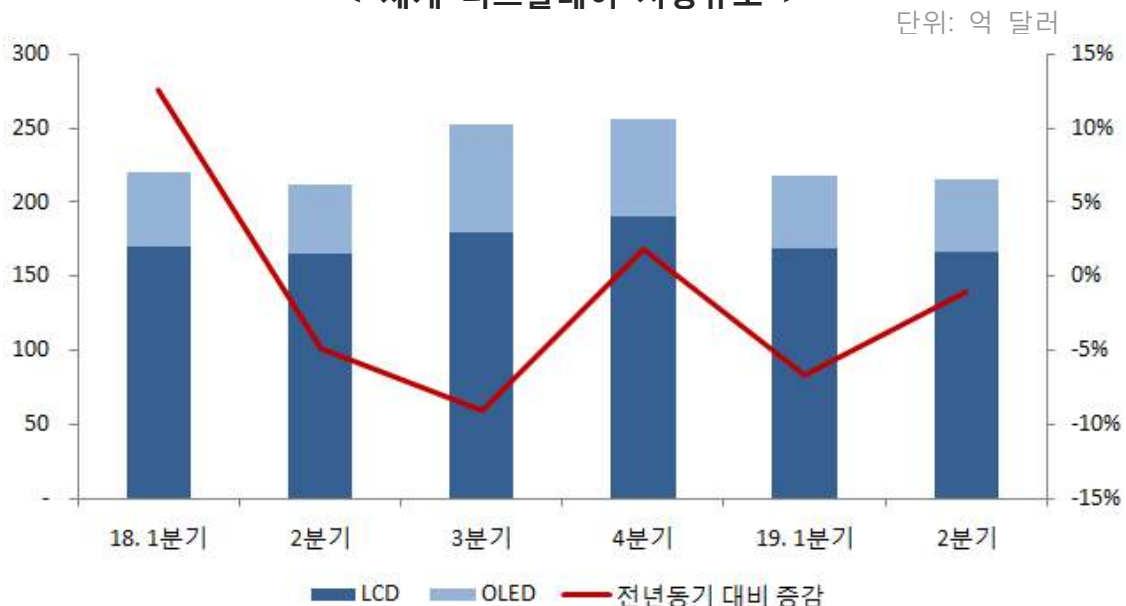


## II. 디스플레이

**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규모는 출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.6%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**

- (LCD) LCD 패널 시장규모는 TV 출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.3% 증가
  - 대형 패널은 노트북용 패널(△2%)과 태블릿용 패널 출하량(△12%)은 감소했으나 TV 패널 출하량(3.0%)이 증가하면서 전체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0.4% 증가
  - 중소형 패널은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8% 감소
- (OLED) OLED 시장규모는 스마트폰과 TV용 패널 출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.7% 증가
  -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% 증가했으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.2% 증가
  - TV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.3% 증가했으나 대형 패널 선호로 인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% 증가

<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>



자료 : IH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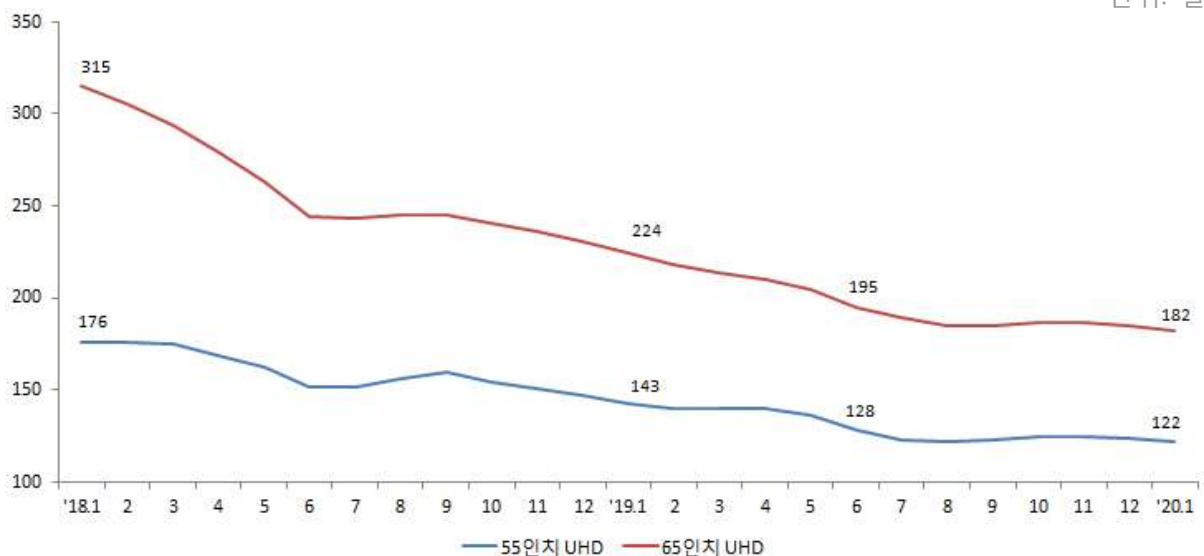


## (가격) 미중무역협상 난항 등 불확실성 증가로 6월부터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3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도래 등으로 가격 하락폭 완화 예상

- 미국의 4차 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부과 추진, 미국의 자국기업과 화웨이의 거래금지 등으로 인해 미중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6월부터 가격 하락폭 확대
  - \* 55인치 UHD 패널 가격(달러): (1)143→(2)140→(3)140→(4)140→(5)136→(6)128 (IHS)
- 중국 TV 세트업체는 세계 TV 판매량('18)의 30%를 생산하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TV 패널 구매를 연기한 점도 가격하락 요인
  - 1분기에는 중국 TV 세트업체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전에 TV를 생산하기 위해 패널을 구매했으나 예상보다 미국·중국의 TV 수요가 정체되자 2분기에는 패널 구매를 축소
    - \* 중국 TV 세트업체 패널 구매 증감율(전년동기 대비) : (1분기) 5%→(2분기) △2% (Tier-1 기업인 TCL, 하이센스 등 기준)
-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악화, 계절적 성수기 도래 등으로 인해 3분기에는 가격하락폭 완화 예상
  - 하반기는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홈 선점,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위해 샤오미에 이어 화웨이(8월), 원플러스(9월말)<sup>5)</sup>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이 TV 사업에 진출하면서 패널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

< LCD TV 패널 가격 현황 및 전망 >

단위: 달러



주 : 2019년 7월 이후는 전망  
자료 : IHS

5) BBK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BBK일렉트로닉스는 스마트폰 기업인 오포, 비보 등을 자회사로 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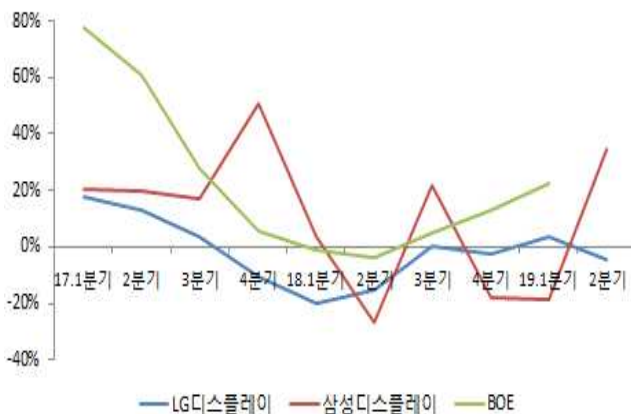




## (기업) 2분기 주요 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했으나 일회성 수익/비용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발생

- (LG디스플레이)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% 감소한 5.4조원, 매출의 70%를 차지하는 LCD 가격 하락 등으로 영업이익은 2분기 연속 손실 발생
  - LCD 가격이 생산원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소형 OLED 관련 일회성 비용 발생 등으로 영업손실이 1분기 1,320억원에서 2분기 3,687억원으로 확대
  - 3분기부터 중국 광저우의 8.5세대 OLED 공장 가동, 자동차용 OLED 패널 출시 등으로 OLED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
  - \* 중국 OLED 공장 가동으로 생산능력은 약 2배 증가(7만장/월→13만장/월)
- (삼성디스플레이)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4.3%, 전분기 대비 24%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
  - 갤럭시S10 출시,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리지드 OLED 구매 증가 등으로 인해 OLED 수요가 개선되고 1회성 수익\* 발생으로 실적이 개선됨
  - \* 애플이 삼성디스플레이에 약속한 최소 공급 물량을 구매하지 못해 지급한 보상금으로 추정 (동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7,500억원, 증권사는 보상금 규모를 약 7,000~9000억원으로 추정)

<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>



<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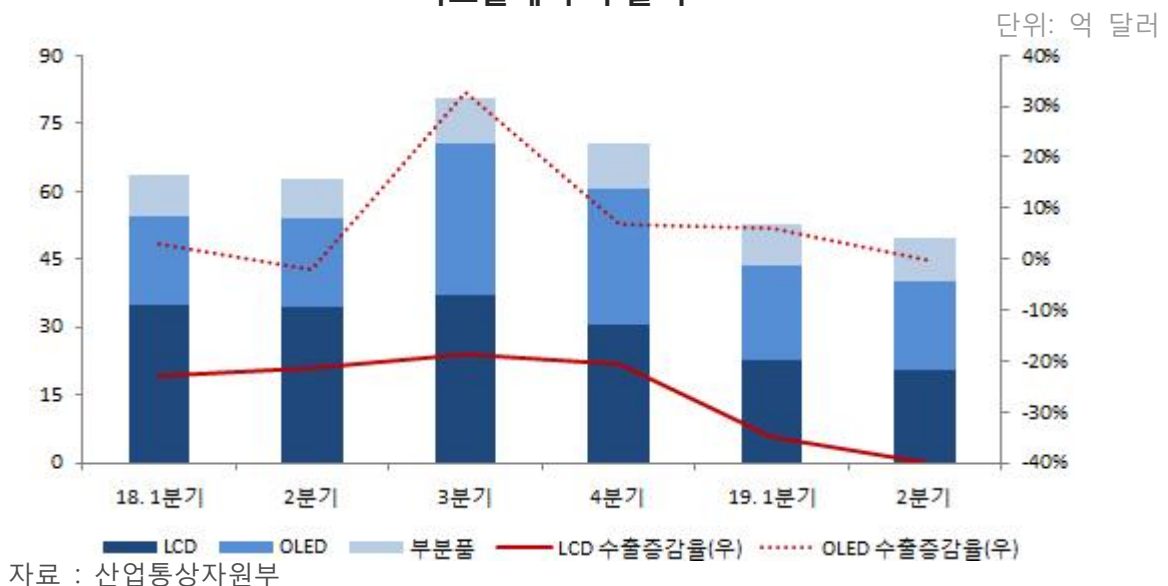
자료 : 전자공시시스템, 각사 홈페이지



## (수출)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.5% 감소한 49.4억 달러를 기록

- LCD 수출은 중국의 생산 확대, OLED의 시장잠식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39.9% 감소한 20.6억 달러, OLED 수출은 전년동기 수준인 19.5억 달러를 기록
-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4.3%, 2위 수출대상국인 베트남 수출은 1.5% 감소했으나 3위 멕시코 수출<sup>6)</sup>은 전년동기 대비 32% 증가
  - 대중국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1.5%, OLED 수출은 6.0% 감소
  - \* 대중국 LCD 수출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4분기)△23.1→('19.1분기)△21.3→(2분기)△31.5
  - \* 대중국 OLED 수출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4분기)△19.2→('19.1분기)1.6→(2분기)△6.0
-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은 LCD와 OLED 물량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.1% 증가
  - LCD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3.3%, OLED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10.6% 증가
  - \* LCD 수출물량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3분기)0.2→(4분기)3.6→('19.1분기)3.5→(2분기)3.3
  - \* OLED 수출물량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3분기)△3.3→(4분기)7.8→('19.1분기)10.9→(2분기)10.6
- 2분기 디스플레이 수출단가<sup>7)</sup>는 LCD와 OLED 가격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17.2% 하락
  - LCD 수출단가는 23.6%, OLED 수출 단가는 10.2% 하락
  - \* LCD 수출단가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3분기)△20.3→(4분기)△18.8→('19.1분기)△23.2→(2분기)△23.6
  - \* OLED 수출단가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3분기)36.6→(4분기)△1.5→('19.1분기)△6.1→(2분기)△10.2

< 디스플레이 수출액 >



6)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서 TV를 생산하여 북미에 수출

7) 수출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물량(톤)으로 나누어 계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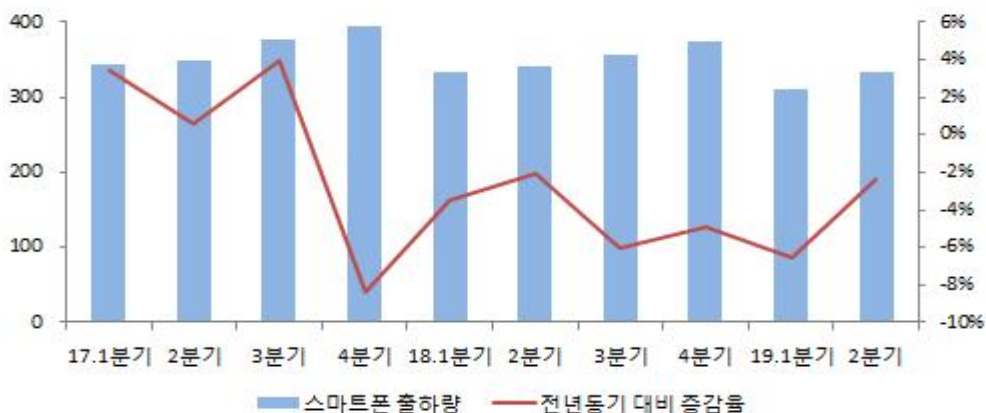
### Ⅲ. 휴대폰

#### (세계시장)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33.2백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2.3% 감소, 전분기 대비 6.5% 증가

- 주요국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7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하락폭은 축소됨
  - \*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 대비, %) : ('18.4분기)△4.9→('19.1분기)△6.6→(2분기)△2.3
-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6% 감소하는 등 스마트폰 출하량 부진지속
-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자국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2위를 유지했으며 애플의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8% 감소하면서 상위 3개 기업중 유일하게 출하량이 감소
- 삼성전자는 1위를 수성하고 있으며 중저가 모델(A·M시리즈) 강화 등으로 2분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5.6% 증가
- 화웨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발표(5월) 이후 해외 출하량은 감소했으나 중국 출하량이 애국심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7% 증가하면서 2분기 총 출하량은 8.3% 증가
  - \* 화웨이의 중국시장 점유율 : ('18.2분기) 27% → ('19.2분기) 37% (IDC)
  - \* 화웨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며 미국기업과 거래 금지로 부품, 소프트웨어 조달이 어려움
- 애플은 스마트폰 상향 평준화에 따른 프리미엄 시장 위축, 중국 출하량 감소(△5.7%) 등으로 인해 2분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8% 감소

<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>

단위: 백만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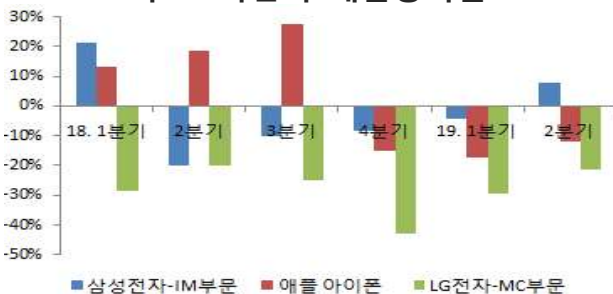
자료 : IDC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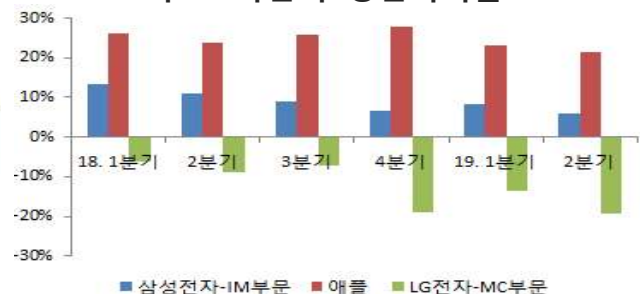
## (기업) 삼성전자의 매출증가율은 5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수익성은 중저가 모델 강화 등으로 인해 하락

- 삼성전자는 중저가 모델 강화, 화웨이의 해외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.7% 증가했으나 중저가 모델 강화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
- 미국이 자국기업과 화웨이의 거래 제한을 발표한 이후 화웨이의 유럽 등 해외 판매량이 크게 하락했으며 삼성전자, 샤오미 등의 판매량이 증가
  - \* 2분기 화웨이의 지역별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 대비, %) : 서유럽 △33, 동유럽 △18 (SA)
-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부품에 한해 화웨이 공급 허용 가능성을 비추었으나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, 화웨이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<sup>8)</sup>, 미국 의회 반대 등으로 인해 화웨이 제재가 지속되고 삼성전자에게 우호적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
-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판매량 감소, 가격인하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1.8% 감소
  - 아이폰 신모델은 매년 3분기에 출시되어 2분기 판매량이 가장 낮으며 미중무역분쟁 심화에도 2분기 중국 출하량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
    - 아이폰의 중국 출하량은 1분기에는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가격 인하<sup>9)</sup>, 보상판매,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
      - \*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 대비) : △6.0%
      - \* 아이폰의 중국 출하량 증가율(전년동기 대비) : (1분기)30%→(2분기)△5.7% (캐널리스, IDC)
- LG전자 MC부문은 판매량 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1% 감소했으며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일회성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17분기 연속 적자 발생
  - 평택 휴대폰 생산라인(5백만대/년)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9월부터 양산 예정

<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>



<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율 >



주 : 애플의 영업이익율은 전사 기준(부문별 영업이익 미발표)  
자료 : 블룸버그, 전자공시시스템

8) The Washington Post, 'Leaked documents reveal Huawei's secret operations to build North Korea's wireless network', 2019.7.22  
9) 중국의 부가가치세 인하(4월, 16%→13%)에 따른 가격 인하

## (수출) 2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.4% 감소한 29.6억 달러를 기록

- 완제품 수출은 수요 둔화, 하반기 신모델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7.9% 감소한 14.2억 달러, 부분품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23.6% 감소한 15.2억 달러를 기록

\* 완제품 수출증가율(%): ('18.3분기)△9.9→(4분기)△26.0→('19.1분기)△7.2→(2분기)△17.9

- 한국기업의 생산기지가 위치한 베트남 수출은 증가했으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, 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베트남 수출은 14.9% 증가했으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5.2%,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4.5% 감소

· 삼성전자는 해외생산기지를 베트남, 인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중국 텐진공장 가동 중단('18.12),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 감산을 추진하는 점도 중국 수출 둔화 요인

- 2분기 휴대폰 수출물량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5.4% 감소

- 완제품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34.7%, 부분품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13.8% 감소

\* 완제품 수출물량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4분기)△41.1→('19.1분기)△24.0→(2분기) △34.7

\* 부분품 수출물량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4분기)△1.1→('19.1분기)△17.5→(2분기) △13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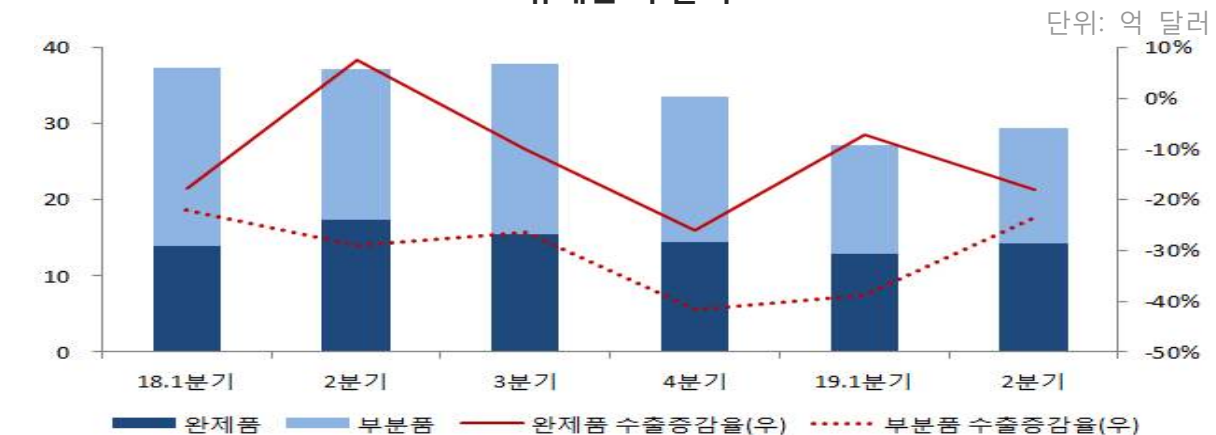
- 1분기 휴대폰 수출단가<sup>10)</sup>는 부분품 수출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6.5% 하락

- 완제품 수출단가는 26.3% 상승, 부분품 수출단가는 9.6% 하락

\* 완제품 수출단가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4분기)24.9→('19.1분기)22.2→(2분기)26.3

\* 부분품 수출단가(전년동기 대비, %): ('18.4분기)△40.3→('19.1분기)△25.1→(2분기)△9.6

< 휴대폰 수출액 >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10) 수출단가는 수출액을 수출물량(톤)으로 나누어 계산